

인터뷰

LG글로벌챌린저 대상팀 “비결은 후마니타스”

장유미 기자 yummy0825@knu.ac.kr

국내 해외 탐방 프로그램의 대명사인 ‘LG글로벌챌린저’ 프로그램에서 우리학교 학생 박수진(관광학 2012), 심지민(외식 경영학 2012), 이재혁(건축공학 2012), 이다솔(관광학 2013) 씨로 구성된 ‘스무살’ 팀이 올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외탐방의 기회를 갖는 ‘챌린저’가 되기 위해선 평균 21.1:1에 이르는 경쟁률을 통과해야 한다. 탐방 보고서 심사 결과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당당히 1등을 차지한 스무살 팀은 대상 수상에 우리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의 배움이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영어를 배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듯, 정치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치 교육이 제대로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이 탐방국 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탐방 국가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에 대한 다솔 씨의 대답이었다.

‘스무살’ 팀의 해외탐방 주제는 ‘정치 교육’이었다. LG글로벌챌린저를 통해 ‘학생정책토너먼트’ 교육과정 도입을 제안하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함이었다. 재혁 씨는 “지금까지 수상작들을 보면 이공계열 주제가 많았는데 저희는 인문 쪽 주제라서 ‘모 아니면 도’라고 생각했어요”라고 말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인문학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준 덕에 주제를 확정할 수 있었어요. ‘학생정책토너먼트’ 교육법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도 시민교육 수업을 많이 참고했어요.” 그들은 학부생활 동안 들은 후마니타스 수업의 기억에 기대어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처음부터 그들이 ‘정치’ 주제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아니다. 한국 교육을 받은 어느 누구처럼 정치관 그들에게도 웬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지는 대상이었다.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뉴스 보고 사회에 무슨 일이 있구나, 정도?”라고 그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다.

대상이라는 영광을 누리게 된 그들이지만 여러 차례 고비를 넘겨야 했다. 주제를 정하는 과정부터 그랬다. 지민 씨는 “주제를 정하기 위해 국내 탐방을 다닐 때 마다 저희가 제안한 주제들이 한국에서 실현 불 가능할 것 같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들어서 막막했어요”라며 당시의 감정을 떠올렸다.

해결의 길은 어느 때처럼 뜻밖의 경로



독일 요하네스 쿠텐버그 대학의 폴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수진, 이재혁, 이다솔, 폴 교수, 심지민 씨.

“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인문학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준 덕에 주제를
확정할 수 있었어요.
‘학생정책토너먼트’ 교육법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도
시민교육 수업을
많이 참고했어요**

”

로 찾아왔다. 다솔 씨는 “올해 3월쯤 종각에서 모임을 했는데 그 때 정치적 사건에 따라 시위도 많이 있었어요”라며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는데 왜 바로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선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고 그 원인이 ‘정치 교육의 부재’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라고 설명했다.

팀원 모두 스무 살이 넘었지만 팀명을 ‘스무살’로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혁 씨는 “지금은 시민교육 수업을 들으며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중,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바꾸면 준비되지 않은 스무 살이 아닌 준비된 스무 살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라며 ‘스무살’의 의미를 설명했다. “스무 살 없는 스무살 팀입니다’는 말로 소개하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네요”하며 팀 명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 ‘학생정책 토너먼트’ 교육법을 제안했다. 수진 씨는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규 수업시간 중에 지역사회 문제를 찾은 다음 정책으로 만들고 무엇이 더 나은지 투표를 하는 거예요. 학교 대표 정책을 뽑아 지역

구에 발의까지 하는 과정이 ‘학생 정책 토너먼트’예요”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민 씨는 “간단히 말하면, 지역 사회의 문제를 ‘정책’이라는 수단을 통해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해주는 취지예요”라며 50페이지에 이르는 보고서를 이해하기 쉽게 요약했다.

방문한 영국, 독일, 핀란드 중 그들은 독일 탐방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한다. 수진 씨는 “독일 대학의 교수님께 한국 학교에서 정치 교육을 하자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셨어요”라며 “정치교육은 당연한 건데 왜 반대를 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지민 씨도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라며 학생 정책 토너먼트 교육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주제선정, 계획서 제출, 해외 탐방 그리고 보고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스무살 팀은 10개월의 기간을 함께 했다. 제일 힘들었던 순간을 묻는 말에 그들 모두 하나같이 ‘최종 보고서 제출’이라 외쳤다. 보고서를 위해 합숙까지 불사했다고 한다. 수진 씨는 “학관 세미나실에서 회의하고, 동방 가서 자고, 편의점에서 삼푸 사서 머

리 감고 했어요”하며 당시의 기억을 떠올렸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각자 의견이 달라서 한 주제 가지고 몇 시간씩 토론한 적도 있었어요. ‘정치교육’이라는 말을 쓸 것이나, ‘시민교육’이라는 말을 쓸 것이나에 대해서만 며칠 동안 이야기한 것 같아요”하는 다솔 씨의 말에서 대상 수상 팀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내용마다 설전이 오갔지만 서로 힘들었던 점을 솔직히 털어놓는 공유의 시간을 가지며 화합을 다졌다. 수진 씨는 “같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밖에 없었고 화합은 저희 팀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대상 수상은 예상하지도 않았던 수진 씨는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수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계속 이름이 안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 놓고 취업 준비하자, 수고했다 말하고 있었어요”라며 당시 심정을 언급했다. “대상에 저희 팀 이름이 불려서 너무 놀랐어요”하는 다솔 씨의 말에서 수상 발표 순간의 떨림과 설레임이 그대로 느껴졌다.

수진 씨는 LG글로벌챌린저에 도전할 후배들에게 “1년을 오롯이 투자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만큼 값진 경험이라는 데에 목소리를 모았다. 재혁 씨는 “저희는 운 좋게 상까지 받았지만, 상을 꼭 받지 못하더라도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생각해요. 대학생 때 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주제로 탐방을 하다 보면 보다 넓은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라고 말했다. 독서토론 스터디 그룹 ‘아레테’를 통해 비판적 시각을 길렀다는 재혁 씨는 “후마니타스 칼리지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조언을 남기기도 했다.

10개월 동안의 대장정이 끝난 지금이지만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빠빠한 스케줄을 이행해야 했다. 다솔 씨는 “인터뷰 도와주셨던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행사 진행 봉사도 했어요”라고 답했다. 이어 “운전면허 기능 시험은 1월에 합격했는데 그 동안 너무 바빠서 아직 면허를 못 따고 있어요. 이번 주에 따로 가요”라고 말하는 그녀에게서 후련함이 느껴졌다. 앞으로 스무살 팀원들은 입사와 인턴 생활을 위한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면허 시험에서도, 회사 생활에서도 지난 10개월간의 기억을 되살려 성공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세계 최일류 융복합 대학

admission.dgist.ac.kr

DGIST

2018학년도 봄학기 대학원 학생모집

전형일정			
구 분	1차	2차	3차
원서접수	6.29(목)~7.13(목)	10.12(목)~10.26(목)	12.14(목)~12.28(목)
면접 대상자 발표	7.27(목)	11.9(목)	'18.1.11(목)
면접 평가	8.7(월)~8.14(월)	11.13(월)~11.21(화)	'18.1.15(월)~1.22(월)
합격자 발표	8.28(월)	12.4(월)	'18.2.9(금)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 홈페이지 admission.dgist.ac.kr

전공별 모집과정

신물질과학전공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정보통신융합전공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전공의 평가결과에 따라 통합과정이 아닌 석사과정으로 입학 가능
에너지공학전공	
뇌·인지과학전공	
로봇공학전공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생은 학기의 수학과정을 마친 후 소정의 절차를 통해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 가능
뉴비아울로지전공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DGIST 캠퍼스가 궁금하다면?
www.dgist.ac.kr/virtualtour

장학혜택 및 특전

납입금 면제	· 전원 국비장학생 선발
교육 및 연구장려금 지원	· 박사과정 : 13,680,000원 + @/년 · 석사과정 : 7,440,000원 + @/년
DPF 선발 (DGIST Presidential Fellowship)	· 특별장학금 : 3,000,000원/학기 · 연구지원비 : 10,000,000원 이내 · 해외대학 연수비 : 16,584,000원 이내
기술사 입주	· 전원 입주 가능
해외연수 실시	· 전공별 해외 유수대학 연수 지원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ETH Zurich, UC Berkeley, Virginia 대학) · 국제 실험지역 참가 지원 등
전문연구요원 편입	· 박사과정 대상 병무청 배정인원 내 편입 가능
국가 거대연구과제 참여	· DGIST 응합연구원 소속 11개 센터 및 연구실 · 한국뇌연구원 · 기초과학연구원(BS) 식물노화수명연구단

수도권 면담형 설명회

매월 둘째 주 금요일
DGIST 서울홍보센터(서울 종로구 무교로 32 호령빌딩 703호)

- 전공별 교수와의 소규모 면담 운영(약 1시간 50분 진행)
- 사전신청 필수(신청자가 없는 전공은 설명회 미실시)

신청
방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DGIST 입학홈페이지 참조

온라인 양식 제출
admission@dgist.ac.kr으로 송부